

가려운 곳 긁어주는 다양한 영어학습서

공격적 제목과 카피로 눈길 ... 시장개척의 여지 많아

세계화 시대. 직장인의 99% 이상이 영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들과 만날 일이 없어도 취직과 진급을 위해 영어에 목을 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의 언어가 영어인지라 영어를 하지 않고서는 '왕따' 되기 십상이다.

모출판사 L편집장.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북 엑스포' 도서전을 다녀온 후 양쪽 귀에 리시버를 꽂고 다닌다. 도서전에서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에이전시 관계자와 함께 외국 출판사의 편집자와 만나면 가끔 아는 단어 한두개만 컷전에서 응용거릴 뿐 두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드는지..."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번엔 반드시 영어공부에 목숨 걸 것'을 굳게 굳게 다짐했다고 한다.

아침에 라디오를 틀면 외국인이 허꼬부라진 소리로 아침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서면 자녀들의 허꼬부라진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쯤되면 영어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인의 승부근성에 불을 놓는 선전문구,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영어를 알아야 한다'는 지피지기론을 담은 영어 학원의 팜플릿이 가정 곳곳에 침투했다. 뭘지 모를 불안감·조급증, 영어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가슴속에 쌓여만 간다.

청·장년층에 인기 높은 단행본 영어교재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영어학습서다. 경비는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덜들고, 책 한권을 읽고 나면 조금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이번엔 반드시'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영어학습서는 당당하게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입증하듯,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영어학습서는 무려 3백여종에 이른다. 대형서점에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할 정도로 이들 책은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청·장년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책들은 주로 단행본이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전집류 형태의 영어회화교재가 붐을 이뤘으나 요즘은 영문법, 슬랭어 등 하

나만 파고드는 각론식의 영어학습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시대에 따라 인기종목이 바뀐 셈이다. 내용도 단순히 영어만 써서 있던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나 실패담이나 성공담 등의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읽기 쉽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대다수의 저자는 영어를 외우지 말고 즐즐 읽으면서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 구조 속에서 독자가 공감하는 내용이 나오면 무릎을 한번 탁 치고 '맞아'를 연발하거나, 저자가 그동안 10년 이상 영어공부하면서 영어회화를 못하는 것은 학습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내 시인한다. 요즘 나오는 책들이 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 말을 믿으시오. 그럼 영어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제목도 독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심리전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배진용의 《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 《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어회화》, 《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어독해》는 영어공부에 목마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긴다. 정말 두 번만 읽으면 끝날 수 있단 말인가. 도솔출판사는 이 책을 펴낸 직후 이런 내용의 전화를 끊임없이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출판사에서 나온 최근 영어학습서의 제목도 《내게 영문법을 가르쳐라!》다. 광고 문구에 '영어공부 10년째, 써먹지 못하는 영어만 뒤죽박죽'이라는 말로 독자에게 "맞아, 맞아"식의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낸 뒤, '영어식 사고로 덜 떨어진 영문법 끝장내기' '더 이상 문법 책을 뒤적이지마'라는 공격적인 카피를 구사하고 있다.

직접적인 제목으로 독자 끌어

또 있다. 하광호씨의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영어의 바다에 솟구쳐라》, 《날마다 먹는 비타민》, 헨리 홍의 《미국인과 대화하기 구구단》, 《미국인과 말문트기 구구단》, 인터넷 영어강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네오퀘스트의 《동사를 알면 죽은 영어도 살린다》, 《영어도 자존심이 있다》, 정철의 《영어공부 혁명》, 이보영의 《미국에서 살다오셨나요?》 등이 그것이다.

영어를 하려면 영어의 바다에서 놀아야 하고, 영어 비타민을 먹어야 하며, 영어 구구



앞으로 영어학습서 시장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을 외워야 하고, 영어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하며, 동사의 능력을 받아 부활 기적을 펼치고, 혁명을 꿈꿔야 한다. 미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어도 두번이면 끝난다.

제목만 볼 때 설마 그럴까 하며 고개를 가우뚱하는 독자가 많아,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지만 천만에 말씀. 앞에 열거한 책들 대다수가 외국어 부문의 베스트셀러다. 배진용의 '두 번만' 시리즈는 출간된 지 1년만에 20만 부를 훌쩍 넘겼다. 영어학습서는 독자의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목적상품이다. 정확한 시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자의 구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갈급한 욕구를 풀어줄 직접적인 제목을 달아야 한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어학습서의 저자들은 각각 저마다 노하우를 쏟아부었다. 학습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학습방법이 충돌되기도 한다. 독자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누가 맞다고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영어 학습법이 잘못됐다는 것과 외우기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 특유의 교육상황에서 익힌 영어로는 외국인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학습방법을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의 어순을 고집하지 말고 영어식 어순 감각으로 바꿀 것,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상황과 이야기를 통해 익힐 것, 영어로 말할 땐 리듬을 탈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들어왔던 것들이다.

저자마다 다른 학습 노하우 충돌하기도

이처럼 대다수의 영어학습서는 중학교 수준의 내용을 반복시켜주고 있다. 그래야 독자가 읽어 나가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성취감을 얻는다. 영어학습서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다. 영어에 왕도가 없다는 사실이다. 영어학습서는 단지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말 그대로 학습서일 뿐이다. 실행은 독자의 몫이다. 얼마만큼의 부단한 노력을 하느냐, 독자 하기 나름이다.

최근에는 듣기용의 카세트테이프를 부록 형식으로 집어 넣고 있는 게 유행이다. 영어는 눈으로 하지 못하는 법. 듣고 읽고 쓰는 것을 골고루 잘해야 한다. 카세트테이프 부록은 앞으로 영어학습서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앞두고 영어학습서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관계자들은 "세계화가 아직 유효하고, 만국의 공통어로 자리잡은 영어에 대한 교육열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장의 개척 여지는 많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박철준> ◆